

광주시의회, 민선 6기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차이나 프렌들리·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120억 구체적·타당성 결여...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선 6기 운항현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전이성이 강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삭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지난 24일부터 3조85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조정실과 도시재생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일부 실국 예산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120억원 이상이 삭감됐다.

윤 시장이 공을 들여온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은 차이나 프렌들리센터 설치, 남도문화관광안내 교류시스템 구축 등 2건, 1억1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 보상비와 전문인력 양성비 등도 상임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긴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관련 사

업은 시작도 못한 형편이다. 손소리 청취 위원회와 1일 시민시장제, 명예부시장제, 찾아가는 시민발안대 등 참여혁신단 사업 등 11건 8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관련 상임위는 이 사업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예산은 10억원 중 5억원만 반영됐다. 윤 시장이 밝힌 수영다이빙팀 창단비(4억4000만원)도 삭감돼 내년 창단이 불투명해졌다.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공공자전거점 대여 운영비(2억원)도 삭감됐다. 시의회는 녹색교통의 대명사격인 도시철도는 외면하면서 자전거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반응이다. 자매 우호도시 확대를 위한 사업비도 깎였다.

시의회는 윤 시장의 공약 사업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일회성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김지축제의 전면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축제비 전액(15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상당수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를 요구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때 부활 여부가 주목된다.

주경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윤 시장의 시정 철학과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상당수가 타당성이나 구체성,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제1금고 농협 2금고 광주은행 선정

5조8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남도 제1금고를 내년부터 3년간 농협은행이 맡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전남도 제1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자금 예치에 따른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들이 농협만한 조건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美 동부지역 폭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지역에 눈·비를 동반한 겨울폭풍이 몰아쳐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고속도로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연휴를 맞아 장거리 이동을 하려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코네티컷주 버논의 고속도로에서 눈길 전복 사고가 발생, 많은 차량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지역에 눈·비를 동반한 겨울폭풍이 몰아쳐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고속도로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연휴를 맞아 장거리 이동을 하려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코네티컷주 버논의 고속도로에서 눈길 전복 사고가 발생, 많은 차량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도 '호남고속철 완전 개통' 전략 마련 착수

전담팀 구성 내달 중장기계획 목포·나주·신안 공동 영향 분석

전남도가 호남고속철 완전개통에 대비해 전남도 각 실과는 물론 관련 시·군 담당자까지 포함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전담팀은 1차로 모두 21개의 과제를 선정해 검토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 회의에서 전략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7일 "지난 18일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 대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18

일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위관향 건설방제국장 단장을 맡고, 도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식품유통과장 등 관련 과장들은 물론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목포·나주·신안 담당과장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달 18일 김영선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한 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차 선정 과제는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기업 판로 확대, 목포·송정역 관광정보센

터 신설 운영,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표기 일제 정비, 관광숙박업소 서비스 향상, 박물관·미술관 연계 남도역사문화체험상품 운영, 토요공연 및 경매 활성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환자 역외유출 대책 등이 포함됐다. 관광분야가 5건, 문화와 유통·판매 분야 각각 2건 등이다.

또 호남고속철이 경우하는 목포시, 나주시, 신안군 등의 자체 전략과 별도로 이들 시·군과 연계해 목포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혁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추진,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육·해상대중교통망 구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문상필 "교육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학생들 피해"

광주시의회 문상필(새정치민주연합·북구 3) 의원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써야 할 교육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총 1조6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132억원이 증액됐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137개 사업 중 인건비 등 32개 사업만 증액되고 2개 사업은 동결, 103개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됐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교육공무원



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8.2%인 826억원이 증가돼 전체 예산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교육복지우선지원·무상급식·방과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 지원·수학여행비 지원 등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이대로 가면 광주시교육청은 지속 증가하는 인건비로 인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결과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정심 "광주시교육청 예산 편성 주목구" "

광주시의회 유정심(새정치민주연합·남구 2) 교육위원장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친환경 우수식재료지원·정보화기기보급·중설학급비품구입 등 예산 편성 곳곳에서 주목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은 교과용도서지원과 친환경 우수식재료지원사업의 대상이 같아야 한다. 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과용도서지원은 3만442명인데 반해 친환경 우수식재료지원은 2만131명으로 무려 1만311명이 차이가 난



다"며 "이들에게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기초인 전체 학생수, 각 급별 학생수, 저소득 대상 학생수, 학생수용계획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 통일된 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재편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은방 "市-교육청 엇박자... 저소득자녀 점심 굶을 판"

광주시의회 이은방(새정치민주연합·북구 6) 의원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예산이 광주시와 협의하지 않고 편성돼 해당 학생 945명이 주말과 휴일 점심을 굶을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 7475명에게 100일간 제공하기 위해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받아 집행할 광주시는 6500명, 115일간으로 예산을 편성해 상임위 의결을 마쳤다"며 "갈



은 사업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대상을 달리해 945명이 주말과 휴일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치단체 전출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에 발생했다"며 "감사관은 해당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의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2015학년도 수시합격자 및 예비 중국어과 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기초 특강

12월 예비대학생 중국어 대 특강

● 접수기간 : 11월 17일 ~ 11월 28일 ● 개강일 : 12월 1일

대학생활 · 취업필수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특강대상 ▶ 수능 응시생 ▶ 新HSK 중국어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
▶ 중문과 예비 대학생 ▶ 입학 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

특강과정 2개월 중국어 기초 완성반
수강기간 || 12월1일 ~ 1월 30일
수강특징 || 2015학년도 대학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소수정원제 그룹수업
입학 전 기초과정 총 정리 및 대학년 과정 사전 학습
충분한 자극제,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습 동기 부여

강의시간 매일반 ▶ 오후반 5시 ~ 6시
매일반 ▶ 저녁반 7시 ~ 8시

수강특전 1. 중국어 기초 단어쓰기 노트 무료증정
2. 수업교재 2권 무료증정

www.gotochina.co.kr
지금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빨리

GOChina 고차이나 중국어학원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Lafuma Effect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